

메시지 5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성경: 롬 5:17, 21, 요 1:16, 히 4:16, 창 6:8, 계 22:21

I.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 즉 넘치는 은혜로 받아들여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 요 1:16, 롬 5:17, 21.

A.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히 4:16.

1. 의심할 것 없이 여기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이다(단 7:9, 계 5:1).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시온좌, 출 25:17, 21, 시 80:1)로 상징되었다.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2.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3.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벤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B. 주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이시자 은혜의 보좌이시다(사 22:23, 히 4:16). 우리가 은혜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 은혜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겔 1:22, 26)로서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롬 5:17, 21).

II.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A.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가 살고 있던 부패한 시대의 참된 상황을 보여 주셨다 — 창 6:3, 5, 11, 13, 마 24:37-39, 딤후 3:1-3.

1. 사람은 결국 전 존재가 육체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창 6:3).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도 사악한 원수는 우리의 육체이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2. 구약에서 아말렉은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인 육체의 예표이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육체와 그 영의 다툼을 묘사한다 — 출 17:8-16, 갈 5:16-17.

- a.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미워하시고 육체를 근절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출 17:16, 갈 5:17.
  - b. 육체는 바뀌거나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롬 13:14, 갈 5:16.
  - c.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미워하시며, 사탄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멸하기를 원하신다 — 출 17:16, 신 25:17-19, 삼상 15:2-3.
  - d.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영에 의해 아말렉에 대항해 싸운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말렉에 대항해 싸운 여호수아는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내주하시는 영의 예표이다 — 출 17:9, 11, 13, 롬 8:34, 히 7:25, 갈 5:17.
  - e.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롬 8:34)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싸우시는 영과 하나 되기 위하여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눅 18:1, 살전 5:17, 롬 8:13, 갈 5:16-17, 24).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서 육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 버리실 때까지 육체와 지속적으로 싸우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다(출 17:14).
- B.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은혜)을 입었다.”라고 말한다.
1.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으로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다.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
  2. 육체는 바로 사탄의 임재이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3.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상황을 손상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 비교 단 1:8, 9:23, 10:11, 19.
    - a.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 — 요 1:14, 16-17, 계 22:21.
    - b. 우리는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히 10:29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 c.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 행 20:32, 골 3:16, 비교 램 15:16.
    - d.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서 성도들과 집회할 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생명의 은혜로 체험한다 — 시 133:3, 벰전 3:7, 행 4:33, 11:23.
    - e. 우리는 고난과 시련 한가운데서 주님을, 증가하며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우리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 — 고후 12:9.
    - f.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3:10, 12상.
    - g. 우리는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다. 객관적인 의는 은혜를 가져오고, 은혜는 주관적인 의를 산출한다 — 히 11:7, 롬 5:17, 21.
- C.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계시, 곧 방주를 건조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길이었다. 노아의 일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다 — 고전 2:9, 고후 6:1, 마 16:18, 고전 3:12.
1.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벰전 3:20-21)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마 16:18, 고전 12:12, 엡 2:15-16, 골 3:10-11, 계 21:2).

2.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다(고전 12:12, 엡 4:11-16).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빌 2:12-16, 히 11:7, 마 24:37-39, 눅 17:26-27).

Ⅲ.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 엡 2:7-10, 벧후 3:13, 계 22:21.